



빤빤기능 내장 CT-2플러스를 테스트하고 있다.

기술개발성공사례

광역빤빤 내장형 시티폰 개발

(주) 유양정보통신

(주)유양정보통신은 지난 1년9개월동안 총 25억의 연구개발비와 27명의 개발인력을 투입하여 광역빤빤 내장형 시티폰(CT-2 플러스)을 개발해 유망한 정보통신업체로 각광을 받고 있다.

작년 9월 시험통화를 거쳐 12월부터 시판된 CT-2 플러스는 현재 만대 정도 보급되어 있으며 호출기 기능이 내장되지 않더라도 서비스가 가능한 새제품 CT-3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76년 석유화학제품 유통업체로 출발하여 지난 1985년에는 HIC 혼성집적회로 제조업체로 업종을 바꾸었다가 다시 10년이 흐른 1994년에 21세기 가장 주목받는 정보통신산업을 겨냥해 제2의 변신을 시도한 (주)유양정보통신(사장 : 韓義鉉)을 찾아가 보았다.

연구개발비 25억원 투입

치밀한 계획과 준비끝에 (주)유양정보통신이 첫선을 보인 제품은 광역빤빤내장형 시티폰(CT-2 플러스)이다. 1년9개월동안 총 25억원의 연구개발비와 27명의 개발인력이 투입되어 개발완료를 거두고 현재 상용화되기 시작한 CT-2플러스는 대중에게도 부담

없이 핸드폰을 안겨주는데 획기적인 성공을 거둘 것으로 예견돼 96년 통신기 분야에서 뉴미디어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제품이다.

CT-2플러스는 호출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가 호출이 왔을 때 전화를 걸기 위하여 공중전화를 이리 저리 찾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경험해본 사람이나, 일반 셀룰러폰에 가입한 사람이 가입비나 보증금, 통화료 등이 너무 비싸 일반 서민이 가입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껴본 사람들의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제품이 출시된지 불과 몇달만에 소비자들로부터 상당히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기존 핸드폰의 경우 10초당 통화료는 24원으로 1분이면 144원, 기본통화시간이 3분이라고 치면 한번 통화료가 432원이다. 그러나 CT-2플러스의 10초당 통화료는 8원으로, 1분이면 48원이므로 기본통화료가 1백50원이 채 안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핸드폰의 경우, 삼성과 LG에서 나오는 보통의 제품은 가격이 많이 할인됐다고 하는데도 보통 65~75만원 선인데 반해 CT-2플러스의 단말기는 22만7천원선이다. 통화료와 단말기 구입에서 3분의 1가격 수준. 여기에다 보증금은 전혀 없고 기존의 핸드폰이 아날로그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발생했던 통화 내용의 노출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는 디지털방식을 채택한 것 또한 큰 장점이다.

96년 9월 시험통화를 거쳐 12

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CT-2플러스는 현재까지 만대정도 보급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호출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가 호출기 교환시 이 제품으로 대체하고 현재 만개 정도의 중계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이 2만개 정도가 설치되어 통화성공률의 서비스가 높아지지만 하면 젊은 대학생이나 주부, 직장초년생들에게 상당한 호응이 일 것으로 예견된다고 한다. 또한 모토로라사에서 아직 개발하지 못한 뼈 빠기능 내장 시티폰을 세계 최초로 자체 개발했다는 것에 대해 유양정보통신은 물론 무선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에게도 상당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새제품 CT-3 개발에 박차

한사장은 CT-2플러스에 이어 CT-3를 개발, 호출기 기능이 내장되지 않더라도 서비스가 가능한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품은 교환국에서 서비스가 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으나 이미 교환국에서의 서비스가 실현되고 있는 대만으로의 수출을 목표로 CT-3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적인 Roaming서비스와 기지국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통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hand-over기능과 막대형 디자인을 보완, 접을 수 있는 제품을 선보여 크기에서도 최경량화, 최소화하여 차세대 핸드폰의 대명사가 되도록 할 계획.

이처럼 (주)유양정보통신은 이동통신단말기인 CT-2시리즈 이

외에도 이동전화용 중계기사업을 위한 CDMA Repeater를 개발, 생산에 돌입했다.

이 제품은 무선통신의 음영지역으로 불리는 지하철, 대형건물의 지하주차장, 터널 등 수신이 불가능한 곳의 입구에 안테나로 받아서 전파를 증폭시켜주는 증폭기로 곧 설치될 예정이며 이 제품은 신세기통신과 계약이 체결되어 97년 7월부터 지하철 5,7,8호선에 설치할 예정이다.

CDMA서비스에 이어 내년부터는 pcs단말기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인데 이미 pcs용 증폭기 개발에 들어가 올 4월 완성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이외에도 유양정보통신의 제품으로는 PC주변기기인 키보드와 프린터를 무선으로도 본체와 연결시킬 수 있는 무선키보드와 무선프린터기를 개발, 종합정보통신으로 가는 발판을 다지고 있다.

무선키보드일 경우는 본체와 키보드를 붙여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협소한 장소에서는 설치가 불편했던 점을 보완하였다. 무선이지만 본체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레이저빔방식이 있다. 이 레이저빔방식은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무선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없었다. 그러나 PC의 리시버와 주파수를 RF방식으로 개발되어 장애물도 돌아갈 수 있게 설계된 무선키보드의 개발은 의의가 크다.

무선프린터 공유기도 유선일 경우는 프린터 하나에 본체 하나로 연결되어야 하는 경제성 문제를 해결했다는 면에서 상당히 각광

받고 있다.


이제 유양정보통신은 pcs서비스에 대비하여 금년중에 pcs단말기 개발에 착수한다. 또한 CDMA 방식대신 GSM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유럽시장을 겨냥 pcs단말기를 개발하여 수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2001년 5천억 매출 목표

HIC사업본부와 통신산업본부, 특수건설사업본부, 화공영업본부 등 4개의 전문본부와 (주)유양화학, (주)유양, BTC, (주)유양건설, 하얼빈유양전자유한공사 등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주)유양정보통신은 정보통신업체로 화려하게 변신하여 각광받고 있는 중견업체다.

(주)유양정보통신이 이처럼 10년을 주기로 업종전환을 하면서도 오히려 탄탄히 기반을 굳히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남다른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원 엔지니어로 구성된 이 회사에서 바로 시티폰시리즈가 탄생했고 앞으로 그 어떤 새로운 정보통신기기가 개발될 지 모르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THINK TANK인 것이다.

2001년에는 전 사업체에서 5천억 규모의 매출실적을 올리겠다는 (주)유양정보통신 한의현사장의 포부가 예사롭지 않다. 주인공의식을 갖자는 사훈으로 20여년을 이어온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양을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이끌겠다는게 전문경영인 한사장의 각오다.  <하정실 객원기자>